

수 개월의 기다림 끝에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내려왔을 때마다, 아빠는 시간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는 내 딸아이의 우주를 마주한다. 지난 2018년, 작은 손을 꼭 쥐고 낯선 적도의 나라로 향했던 내가 이제는 국제학교 교정을 씩씩하게 누비며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으로 자란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코끝이 찡해지곤 해. 비록 아빠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너희는 싱가포르에 머물러 있어 평소에는 매일 밤 영상통화 화면 너머로 서로의 하루를 나누지만, 비행기에 오를 때마다 아빠는 늘 말로 다 못 한 그리움과 깊은 사색을 마음속에 적어내려 가곤 한다.

아빠가 자란 1970~80년대의 한국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르듯 명확하게 나뉜 완고하고 묵묵묵한 시대였어.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부엌에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당연한 미덕이었고, 아버지는 서류가방을 들고 출근하면 어머니는 온종일 집안이라는 폐쇄된 세계에서 가사와 육아라는 거대한 무게를 혼자 짊어지셔야 했지. 하지만 회사이라는 치열한 일터에서 청춘을 보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빠는 성별과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열정만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멋진 동료들을 보았고, 반대로 섬세한 공감 능력으로 조직을 따뜻하게 치유하는 리더들을 만났단다. 세상이 규정해 놓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틀이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얼마나 제한하고 있었는지 깊이 깨닫게 된 거지. 특히 타지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가며 멋지게 입지를 다진 네 엄마를 보며 아빠는 깊은 존경심을 느낀단다. 만약 엄마가 옛 시절의 관습에 갇혀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만 살아야 했다면 그 눈부신 재능과 열정이 얼마나 슬프게 갇혀 있었겠니. 그것은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삶의 가장 큰 손실이었을 거야.

그래서 아빠는 싱가포르 집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우리 가족만의 소박하고도 소중한 약속을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고 있어. 주말 아침, 엄마가 밀린 회사 업무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을 때 아빠가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네가 좋아하는 달걀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풍경 말이야. 아빠에게 그 일은 전혀 어색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의 하루를 여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아침의 시작이란다. 그때 네가 다가와 곁에서 행주로 식탁을 닦고 그릇을 정리할 때, 아빠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감동을 받곤 해. 너는 그것을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이 집안의 독립된 주체로서 당연히 나누어야 할 '나의 온기'로 여기고 있었으니까. 학교에서 축구장을 거침없이 누비고 단편영화 제작 감독으로 친구들을 이끄는 너의 모습처럼, 집안일 역시 성별의 영역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다정한 생존의 기술일 뿐이란다. 엄마가 씩씩하게 집안의 기계를 고치고 가정을 이끌 때나, 아빠가 한국의 빈집에서 홀로 청소와 빨래를 완벽히 해낼 때,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를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나란히 걷고 있었던 거지.

사랑하는 내 딸아, 평등이란 거창한 법률이나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식탁 위에서 나누었던 이 작은 다정함과 서로의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개인이 가진 고유한 성품과 재능을 성별이라는 좁은 안경으로 재단하지 않고, 기회의 평등과 가치의 무게를 동일하게 두는 것 말이야. 앞으로 네가 나아갈 세상에서 혹시라도 “여자가 왜 그렇게 드세니?” 혹은 “남자가 왜 그렇게 소심해?”라는 선입견 가득한 말을 마주한다면, 주관이 뚜렷한 것과 신중하고 섬세한 성품을 성별의 감옥에 가두려는 낡은 언어일 뿐임을 의연하게 알아채렴. 전 세계의 배들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자유롭게 오가는 싱가포르의 푸른 바다처럼, 너 역시 성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꿈의 크기를 스스로 줄이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란다. 엄마가 일터에서 보여준 당당함과 아빠가 주방에서 보여준 다정함이 네 삶의 올바른 이정표가 되어, 오롯이 너라는 존재 자체로 눈부시게 빛나기를 아빠는 오늘도 한국의 푸른 밤하늘을 바라보며 온 마음으로 응원하마. 다시 만날 너의 환한 미소를 그리워하며, 언제나 너를 가슴 깊이 사랑하는 아빠가.